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또 오월이 간다. 광주에 살고 있는 죄로 일년 열두 달 중 가장 화려한 달 오월이 그럭저럭 즐겁지 않은 달이다. 그네들을 떠나보낸 지난 39년 동안 제삿날이 된 5월은 늘 아프고 우울한 달이었다.

그나마 올해는 광주가 좀 덜 외로웠다. 그동안 쏟아져 나온 광주 관련 영화를 탓인지 다른 시각으로 광주를 바라보는 이들이 늘어난 것 같다. 특히 젊은이들, 어린이들까지 5·18을 관심 있게 바라봐 준 것, 너무 감사했다.

5·18을 직접 겪었던 세대가 광주를 떠나고 나면 박물관의 유물처럼 굳어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이전 안 해도 될 것 같다.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대를 이어가고 있으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광주 형사 재판 때 ‘홀라송’에 맞춰 구호를 외쳤던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5·18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518개의 주먹밥을 만들어 경로당에 전달했다는 소식은 정말 뭉클했다. 광주 시 동구 지산2동 지산마을주민협의회와 동산초등학교는 17일 5·18의 상징인 주먹밥 체험행사를 진행했는데, 동산초 재학생들과 주민 500여명은 518개의 주먹밥을 만들어 8곳의 경로당을 찾아가 주먹밥을 전달했다고 한다.

현장칼럼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몇 주 전 교육부가 주최하는 해외 교육연수를 다녀왔다. 연수희망 국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선택했다. 오래전부터 나는 북유럽 교육에 대한 궁금증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왜,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은 PISA 등 국제학업성취도가 높은가? 부분 과목에서는 한국과 1·2위를 다투지만 한번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고, 우리는 오히려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추월당해서 밀려나고 있는가? 그들 나라의 교육저력의 뿌리는 무엇인가?” 핀란드에 도착했을 때 현지 도우미로부터 나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최근 핀란드에 뜨고 있는 관광상품이 있는데,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관광’이라는 신상품이라고 한다. 소위 진보교육체제이후 일을 다뤄서 시ết말로 ‘타도 핀란드’를 외치며, 북유럽교육의 강점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추진했었다. 일각에서는 잘사는 나라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단순

터군다나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과거 발표한 ‘마 시티’(Ma City)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 노랫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외국인 아미(ARM Y·방탄소년단 팬클럽)도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 pt.2’에 수록된 ‘마 시티’는 광주 출신 멤버인 제이홉 등 멤버 3명이 직접 작사한 곡으로, 멤버 각자가 자란 도시를 주제로 담았다. 제이홉은 이 노래에서 “나 전남남도 광주 베이비(baby)” “날 불러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모두 다 불러라 062-518”이라고 랩을 한다. 팬들은 062는 광주의 지역 번호,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외국 팬은 실제로 광주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덕에 광주를 찾은 해외 젊은이(Army)들 해외 팬들은 유튜브 브와 트위터를 통해 5·18을 퍼 나르고 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5·18에 관심을 갖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이면 5·18 40주년이다. 필자와 같은 이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5·18과 함께 살았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저런 어린아이도, 이런 순수한 청년들도 5·18을 기억하고 구명하라고 애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가계자들은 5·18을 부정하고 5·18을 폄해하고, 아직도 5·18을

누가 뭐래도 5·18은 군사 쿠데타에 항거한 시민 저항운동이다. 정치적 공백기를 틈타 정권 장악에 나선 신군부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광주를 제압하기 위해 그들은 광주에 공수부대와 특전사를 보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할 시민들에게 군부는 총부리를 겨눴고 난도질했다.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숨지고 불구가 됐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230여명, 부상자를 포함하면 사상자는 3천400여명에 이른다.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럽다.

지금 광주의 가장 큰 고통은 송고하게 숨진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언과 폄해를 지켜보는 것이다. 최근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은 폭동이다’, 김순례 의원은 ‘5·18유공자는 세금을 추내는 괴물집단이다’, 지만원은 ‘5·18은 북한이 사주한 것’이라며 회롱했다. 인두갑을 쓰고 할 말인가 싶다.

5월을 보내면서 영령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5·18에 대해 갖은 비방과 욕설을 일삼아온 자유연대 등 일부단체는 5·18추모기간인 17-18일 광주 일대에서 집회까지 했다. 오월 영령이 잠든 5·18민주묘지 앞,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금남로, 오월 항쟁의 발원지인 전남대 등 상징적인 장소만 골라 비방집회를 하는 이들은 바라보는 광주시민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 찢어진다.

“홍이 무침”이라고 부르는 열거적인 표현, 망언과 왜곡, 폄해, 혐오 표현까지 아무 제지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단죄할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 탓이다. 진실 규명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곡 은폐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아서다.

해서, 바란다. 제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에 출범할 예정이었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빨리 가동하라. 특별법이 정한 진상규명 범위는 발포 경위와 책임자, 진실 왜곡 및 유해 발굴, 민간인 학살 등이다. 성범죄와 헬기 사격 등도 조사 대상이다. 시민 행세를 하는 특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됐다는 당시 미 육군 군사정보관의 새로운 증언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여·아는 합심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계신가. 5·18의 폄해와 왜곡을 막기 위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5·18은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자 군부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 현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광주의 자랑이다. 이제 제발 5·18까지도 이념논쟁 말라. 5·18은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거듭 정의하자면, 12·12 군사 반란과 불법적인 계엄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다. 그 과정에서 권력유에 눈먼 정치군인들이 시민들을 학살한 참극에 다름 아니다. 5·18은 6·29를 거쳐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

그 누가 우리의 이 막막한 가슴을 아냐. 39번째 오월도 가고 있다.

는 운동이 생기고 있고, 많은 교장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교육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PISA 등 국제학업성취도가 높은 이유가 궁금하고, 적은 투자를 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이유와 높은 학구열의 배경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유럽교육에서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교육체제로부터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제도의 강점을 배우고 싶은 것이고, 그들은 고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높은 학구열과 경쟁체제와 강력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교육을 배우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은 살리되, 북유럽의 강점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높은 학구열과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강점이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참여와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높이는 방안이다. 우선 국가장학금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대학확립네트워크 등의 유연한 체제를 확보하여 사교육비를 잡고,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 힘으로 교육의 본질인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두운 밤거리에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파지를 찾아 헤메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다. 더욱이 최근엔 파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활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몫이다. /김덕형·장성철경찰 정보보안과

社說
도교육청-화순군 교육복지 싸고 갈등이라니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을 놓고 교육행정 당국과 지자체가 공개적인 ‘설전’을 벌여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자체의 교육복지 사업 지원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의 속내를 드러내 진의가 뭇지 의아스럽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3일 장 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자체가 의욕이 지나쳐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하려는 사례도 있고, 또 단체장의 ‘실적 쌓기용’으로 비취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장 교육감은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 수학여행 및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거론하며 “각 교육지원청마다 계획이 있는 만큼 직접 사업보다는 시·군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중심으로 교육협력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경계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구 군수는 최근 광주 한 지역신문에 ‘지자체의 교육복지 확대에 찬물 끼얹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게재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구 군수는 기고에서 “단체

장 실적 쌓기’ 발언은 학교 급식(무상 급식) 지원을 두고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퍼주기라고 몰아세웠던 과거 보수의 프레임과 본질에서 닮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며 “이런 왜곡과 비난은 지자체와 힘을 모아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수장이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정책을 폄해하고 왜곡하는 태도와 편협한 인식을 전제로 한 ‘협력’은 공허하다”고 되받았다. 이번 설전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역교육장 공모, 공동학군제, 야구장 설립·운영 등 교육 현안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온 것으로 알려진 도교육청과 화순군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본연의 역할이긴 하나 최근 경향은 지자체가 복지차원에서 학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서로 혼신을 겪는 과정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적인 목적이 미래 세대의 꿈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볼 때 정치적인 논쟁은 도교육청과 화순군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밥그릇 싸움’ 대선 안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680억원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나주시역 민간기업과 주민이 납부한 도세와 시·군세를 포함하면 3천456억원 규모에 달한다.

나주시는 지난 28일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작’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기금 조성 시기와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나주시는 애초 혁신도시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금조성을 두고 광주시와 의견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시·도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나주시의 제안에 대해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는 그동안의 약속과 거리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당초 약속이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거부 입장을 밝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주시가 제안한 30억원이 2019년 징수분의 20%에 불과해 광주시가 양보한 50%(68억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조성 시기 역시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여전히 실현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나주시의 공동 용역 추진 제안은 발전기금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최근 나주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진전된 수정안을 요구했다.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돈 놓고 지자체가 다툼을 벌이는 것은 골사나운 모습이다.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상생의 결실이다. 그리고 발전기금 조성은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이다. 광주·전남, 특히 광주와 나주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다. ‘혁신도시 시전 2’ 등 앞으로 공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눈앞의 ‘밥그릇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생정신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픽 뉴스

화웨이, 美제재에도 스마트폰 시장 2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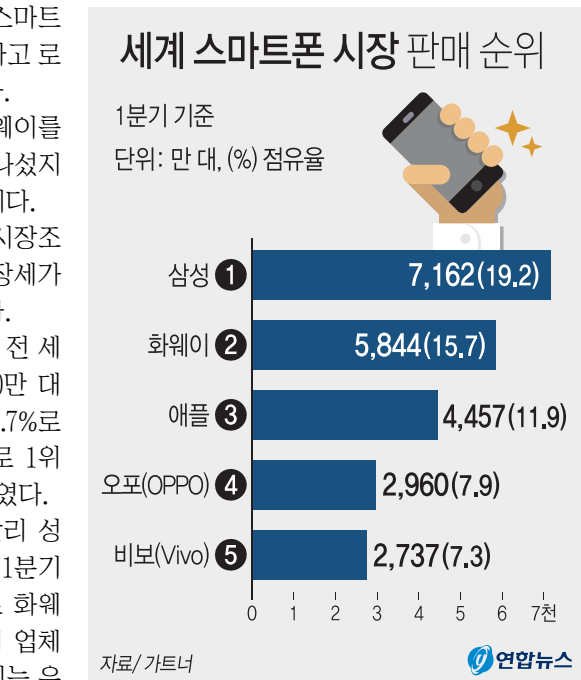
중국 화웨이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2위 자리를 지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15일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리며 제재에 나섰지만 1분기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로이터는 그러나 판매량을 집계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를 인용해 화웨이의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화웨이는 1분기에 전 세계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5천84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15.7%로 2위를 지켰다. 삼성은 점유율 19.2%로 1위 자리를 유지했고, 애플이 11.9%로 3위였다.

특히 화웨이는 삼성이나 애플과 달리 성장세를 이어갔다. 삼성·애플이 작년 1분기 이후 점유율이 감소세인 것과 반대로 화웨이는 오포와 비보를 포함한 상위 5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화웨이는 유럽과 중화권 시장에서 선전했다. 전년과 견줘 유럽에서는 69%, 중화권에서는 33%나 각각 판매가 늘었다. 중화권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29.5%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의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는 이런 성장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는 “화웨이에서 구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도 계속됐다. 1분기 소비자에게 판매된 스마트폰 물량은 2.7% 감소한 3억7천300만 대에 그쳤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무국 650-2019		
	정지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문의 650-2072			
	경제부 650-2050	채운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사설부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